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53)]수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2)

해남출신 김영식씨, 산방산 갱도에서 광복때까지 중노동

입력 : 2007. 01.18. 00:00:00



## 보길도가 보이는 지점서 선박 화재

## 소금에다 밥을 찍어먹는 생활 비참

김영식씨(1922년 생·제주시 화북2동 5545-1)는 전남 해남군(황산면 옥동리 123번지)이 고향이다. 9세 때 제주에 처음 와서는 자주 왕래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전남 해남 옥매산광산에서 강제징용돼 산방산 갱도구축 현장에서 끔찍한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패망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선박침몰로 수장될 뻔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 1962년 제주에 다시 와서 토목 관련 일을 해왔다.

김씨가 제주로 강제 징용된 것은 1945년 음력 3~4월쯤으로 기억했다. 옥매산 광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제주로 강제 징용 됐는데 자신은 두 번째 이송시 제주에 왔다는 것. 광부들을 태운 수송선은 전·후·좌·우에 일본 선박 4척이 감시하는 가운데 제주로 향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제주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느 날 회사 앞에 모이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 떠난 사람들이 혹독하게 고생하니까, 그래서 제주로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광산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려다가 회사 앞에 장작을 놓고 강제로 장작 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있는지 바른대로 대라고 강요를 했죠. 가족들을 실제로 때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김씨 등 대부분의 광부들은 어쩔 수 없이 제주행 배에 몸을 싣는다. 당시 제주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는 잘 몰랐다.

"옥매산 광산에서 10리 정도 걸어서 연락선을 타고는 목포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5시쯤 돼서 배가 출항했습니다. 배가 뜨게 되니까 사람들을 싣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매산광산의 인원 전부가 제주로 왔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옥매산광산에는 3백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옥을 파는 현장이 5~6군데 됐다는 것. 당시 큰 현장에는 50~60명 정도, 작은 현장에는 30~35명 정도가 일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 서남부 해안에 솟아있는 산방산과 화순일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광부들은 다음 날 아침에 제주시 산지항에 도착한다.

"도착하고 보니 당시 제주시내는 전부 초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는 유리창이 전부 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났구나 생각을 했죠. 거기서 차량을 이용 모슬포로 갔습니다. 모슬포에 갔는데 며칠 앞서 간 사람들이 우릴 보고 어떡할려고 여기 왔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고생이 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슬포 생활이 시작됐다. 김씨 등 광부들은 산방산에 배치돼 갱도를 파야만 했다. 김씨가 한 일은 망치 등으로 구멍을 뚫고 심지를 집어넣고 발파하는 일. 또 식암기 등으로 구멍을 뚫기도 했다.

"산방산에서 한 조가 일하면 다른 조는 쉬었습니다. 1개조는 3명 정도 됐습니다. 2명이 발파작업을 하면 1명은 밖으로 날랐습니다."

김씨는 당시 산방산 남쪽방향에서 굴을 파고 들어간 것으로 기억했다. 굴 내부에서 한 두개 방향으로만 관통시켰다는 것. 갱도를 파는 현장에는 일본군 한 사람이 와서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굴을 파다가도 비행기 소리만 나면 두려움에 떨었다.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했다.

"당시 주먹밥을 줬는데 반찬은 없고 소금에다 밥을 찍어먹었습니다. 또 천막은 없었고 새·역새 등을 깔아서 잤습니다. 평지에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풀로 둥그렇게 빙 둘러서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젖습니다."

김씨 등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일제 패망 때 까지 산방산에서 모진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는 원자폭탄이 투하로 항복할 때 3~4일 정도는 숨겨서 말을 안해줬습니다. 혹시라도 해꼬지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옥매산 광부들은 제주시 산지항에서 배를 타고 귀향길에 오른다. 배에 불이 난 것은 다음날 아침 무렵이다.

"보길도가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배에 불이 난 것이죠. 화재 원인은 기관방에서 일본사람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산방산에 구축된 관통형 갱도 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배에 불이 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 들었다. 바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성급하게 뛰어 들어 헤엄친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당시 수영하는 사람은 다 죽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가다가 전부 다 죽은 것이죠. 헤엄을 못치는 사람들은 줄 하나씩을 배에 묶고, 나무 판대기 등을 이용해서 화재가 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매산 광부들은 청산도를 거쳐 고향인 해남으로 갔다.

"당시 회사로 가서 때려 부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도 못한 채 60여년 세월을 가슴속 한으로만 삭여왔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오름관통 갱도확인..화순항 한눈에

전남 해남 옥매산광산 광부들이 강제징용 노역에 동원된 안덕면 산방산은 산 전체가 종모양의 '용암돔'(lava dome)을 이루는 거대한 화산체다. 표고 3백95m에 비고는 3백40m. 이 곳에는 해남 지역 광부들이 판 관통형 갱도진지가 확인된다. 산방산 7부 능선 지점에서 북북서~동동북 방향으로 뚫려 있다. 갱도의 총 길이는 48m, 폭은 200cm~250cm, 높이는 150cm~180cm 정도 된다. 갱도 벽면에는 삭암기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다. 한눈에도 조면암의 단단한 암반으로

돼 있어 굴착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통한 입구에서는 화순마을과 화순항을 볼 수 있다. 화순항 일대는 당국이 군사기지 설치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사회 최대현안으로 부각되는 등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른 곳이다.

이 일대는 태평양전쟁 당시에도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지점으로 예상되던 곳이다. 미군의 상륙할 경우 일본군으로서는 곧 패전을 의미하고 한라산 깊숙한 복곽진지까지 후퇴해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이 때문에 제주 서남부 해안의 사수는 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다. 해안선 사수를 위해 배치된 부대는 제주 주둔 일본군 가운데 최정예로 알려진 111사단이다. 이들은 만주 관동군 출신들로 243·244·245 연대 및 예하부대와 포병부대가 요소요소에 배치돼 군사시설을 구축한다. 대규모 병력 및 무기 배치와 함께 이들은 단산~산방산~월라봉~군산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주저항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산방산을 관통한 갯도는 일본군의 전쟁야욕이 빚어낸 아픈 역사현장이자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취재팀>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